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Examine and Test Yourself)**

(고후 13:5-7; 2 Corinthians 13:5-7)

“아 하나님의 은혜로” “Only by God’s grace”

C.S.루이스 (Clive Staples Lewis)는 “천국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 버린다”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 6:33)

C.S. Lewis once said, "Aim at heaven and you will get earth thrown in. Aim at earth and you get neither." That's right. Those who choose heaven would earn the world as well as heaven. But those who choose heaven must live like those who did it. It is to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s Jesus said (Matthew 6:33).

사도 바울은 천국을 선택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낙제생이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될 것을 중용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시험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역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그 결과에 대해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부득불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낙제생이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 후서 13:5-7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합격해야 할 두 가지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The Apostle Paul suggested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who chose heaven to "put yourself to the test and examine yourself." He urged them not to fail the test, but to pass the test. In fact, people don't enjoy being tested. Nor do they enjoy examining and testing themselves. It is because both the test itself and the results could be burdensome. But those who choose heaven must examine and test themselves no matter what. Those who take the test should pass it, instead of failing it. Through today's scripture from 2 Corinthians 13:5-7, I would like to preach two tests we must pass.

1.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1.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시험을 많이 당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시험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 가지 점에서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시험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의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The Apostle Paul had been tested so many times throughout his life.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also tested Paul's apostolic authority. Paul urged them to correct their mistakes in two ways. One is about the subject of the test. The object of the test should be oneself, not others. And the test should be about faith, above all. That is right. We should test ourselves, not others. We should test our own faith, not others.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험의 불합격자, 곧 낙제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험의 낙제생이 되어 버림받은 신앙의 실격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천국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은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 버리게 됩니다.

There are enough reasons the Apostle Paul repeatedly stressed to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f.” He believed that Jesus Christ is in him or her if he or she is in faith. “Do you not kn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he asked. And he added that they failed the test, if not. In other words, they didn't pass the test. This is what Paul worried about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They were the people who chose heaven. But some of them weren't in faith. In other words, Jesus Christ was not in them. Those are the ones who would end up becoming a failure and a disqualifier as a believer. They looked to choose heaven outwardly, but actually chose the world. As a result, they will lose both heaven and the world.

김형국 목사님은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한때 선교 단체에서 그와 함께했던 여학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 대안학교의 교장이 되었다는 그 동료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마흔 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찬양곡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모습은 마치 오물을 실크 스카프에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형국이었을 거예요. 남들은 그게 고급스러운 스카프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배설물밖에 없었어요. 나이 마흔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지금껏 저 자신을 속이고 꾸며 온 죄를 깨달았죠. 그제야 제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됐어요.” 아멘!

Pastor Kim Hyung-kook mentioned in his book, 'Meeting Never Stops,' about a story of a school girl who once joined him in a missionary group. He met her who became a principal of an alternative school after a long time, and heard a shocking confession. "Pastor, frankly speaking, I met Jesus when I was 40 years old." "No, that is not true. We used to live a faithful life and even make praise songs together. It is hard to believe." She said, "I lived a church life extremely well, but I didn't rely on the Lord. I didn't even regard it a sin. At that time, I must have been carrying a lot of trash wrapped by a silk scarf. Others would have thought it was a luxury scarf, but in fact, there was only trash inside. It was not until I met the Lord at forty that I realized the sin I had committed, which is lying to myself. Now I found out I couldn't live without Him for a day, so I decided to dedicate my whole life to Him." Amen!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10 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6 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The Apostle Paul said in Ephesians 5:10, "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Hebrew 11:6 reads, "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입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일 5:4).

What we must do to please God is to test our faith first. Those who examine and test their faith would please God. Then, I believe Jesus Christ living in them would help them win the world. (1 John 5:4)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실크 스카프에 배설물을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함으로써 신앙

시험의 실격자가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and test yourselves.” Those who do such wouldn't live a faithful life without Jesus Christ living inside of them. They would never live a faith life neither believing in Jesus Christ nor relying on Him. Those who examine themselves to see if they are in faith would meet Jesus Christ. They would no longer carry trash wrapped with a silk scarf, but would wholly dedicate their lives to Him. Then they would please the Lord and become a Christian defeating the world.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KUMC, I earnestly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that by examining and testing yourself to see if you're in Jesus Christ, you would pass the test and live a life by taking Jesus Christ as the owner of your life.

2. 너희는 선을 행하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 Examine yourself to see if you do good and test yourself.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배척을 많이 당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교회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겼습니다 (고후 12:11).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고후 13:6). 이는 그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이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답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had been persecuted so many times throughout his life. In fact, he was the one worthy of praise from the Corinthian Church. But they regarded Paul as a fool (2 Corinthians 12:11). But he didn't write the Book to regain his honor. The ultimate purpose of his letter to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was to make them stand firm in faith and do good. So, he said, "I trust that you will discover that we have not failed the test" (2 Corinthians 13:6). This means that he is in faith and Jesus Christ is in him, and he lives a life as a faithful believer doing good.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한 것은 그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버림 받은 자같이 볼 지라도 바울은 그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지 자신을 시험하며 확증하는 사람은 때로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할지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 (고후 12:11)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Now we pray to God that you will not do anything wrong…” The reason that the Apostle Paul said praying to do no evil was not to defend that he was right. Rather, it says he could do wrong or do evil. Thus, even if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may regard him as an abandoned stone, Paul said he would pray for them to do good. That’s right. No one in the world is perfect and doing good all the time. But those who examine themselves to see if they are in faith may do evil but do good eventually even though they do evil for some time. They look like a fool (2 Corinthians 12:11), but are the ones who chose heaven. As a result, they would earn the world as an extra.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를 도입한 김수지 전 이화여대 간호대학장의 이야기입니다. 김 박사님은 1948년 여순사건 때 총살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남성을 돌봐줬던 간호사 아주머니에게 감동을 받아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들어갔고 1978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 부터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김 박사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This is the story of Kim Su-ji, former head of the College of Nursing at the Ewha Women’s University. She was the one who introduced hospi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Deeply moved by a nurse who took care of a man dramatically survived from execution during the Yeosun Uprising in 1948, Dr. Kim decided to become a nurse. So, she entered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he university and later in 1978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earn her doctoral degree from the Boston University, which was the first for Koreans. When people ask her, "Why did you become a nurse?" her answer is simple and clear.

“하나님은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다. 간호사는 돌보는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돌보셨다. 그 주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이유다. 크리스천이란 누군가? 크리스천은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생각과 삶이 변하고 끝내는 주위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분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게 성공은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멘!

"God called me to become a nurse. A nurse is a caretaker. The Lord took care of me. The Lord's care is the reason why we should take care of others. Who are Christians? Christians are those who change their thought and life by taking Christ as the Lord and change their neighbors. When I confess to Jesus Christ as the Lord, Christ, the Lord, comes into me. Therefore,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God I have met is the caretaker. He has taken care of me and wants to take care of others through me. As for me, the success is to live a caring life as Jesus Christ did. I'll live such a life until the day I die." Amen!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10 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였습니다.

The Apostle Paul said in Ephesians 2:10,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Romans 12:17 reads,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one."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시험하고 입증하는 사람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롬 12:21)

The test we must do to live a life God intended is to see if we do good in Jesus Christ. Those who examine and test this to themselves never repay anyone evil with evil. We believe we don'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Romans 12:21)

너희는 선을 행하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선을 행하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심 같이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을 성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이루고 주위까지 변화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마 5:16)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mine and test yourself to see if you do good.” Those who do as such would never do evil. Those would serve and take care of others as the Lord takes good care of them. They would regard it as the success in life.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KUMC, I earnestly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you would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through examining and testing yourself to see if you are doing good (Matthew 5:16).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BCD 라고 했습니다. 즉 ‘출생(Birth)과 사망(Death)사이엔 선택(Choice)을 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 중의 선택은 천국 선택입니다.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 꼭 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판단하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판단할 것은 믿음과 선행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마땅히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믿음과 선행에 불합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에 배설물을 싸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Philosopher Sartre said life is BCD. It is to live by making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The best choice is to choose heaven. Those who choose heaven must take a test. Examine and test yourself. Test and judge yourself. The criteria to our test are faith and good deed. Those who chose heaven ought to pass the test. But some who led a faithful life and church life hard may fail the test. But those who truly met Jesus Christ would never carry trash wrapped by a silk scarf. I believe they would live a life as a precious and valuable being like a pottery filled with precious ston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선행을 시험하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자가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더하여 덤으로 주시는 세상의 복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KUMC, I suggest you to examine and test your faith and good deed. I pray earnestl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as those who chose heaven, you become those who pass the test and receive the worldly luck as well as grace given to those who seek first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men!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